

교회목표

1. 천국일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자 구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18:1)

주간총회

발행인 : 이 중 윤

발행처 : 대한애수교장로회
총회 교회
서울 강남구 역삼동 665-1

전 화 : 552-8200 FAX: 552-2925

사서함 : 영동우체국 1896호

91년도 목회 지침 : 모범적인 교회 생활 지표 :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사랑의 수고에 있는 교회·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

제자훈련에 자발적인 참여 기대 “모범적인 교회”를 주제로 21일부터 시작

내일 준비 모임 및 기도회 갖기로

제4회 총회제자훈련이 드디어 이번 주 목요일(21일)을 기해 시작된다.

이번 훈련은 “모범적인 교회”라는 표어 아래 3월 21일부터 5월 24일까지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에 실시된다. 모두 10차례에 걸쳐 진행될 이 훈련에서는 정기 봉 목사, 신평근 목사, 김양홍 목사, 안경소 목사, 김찬곤 목사가 강사로 수고하게 되며 위임목

사와의 만남의 시간도 준비되어 있다.

제자훈련은 교역자, 장로, 안수집사, 권사, 서리집사, 권찰, 교사, 찬양대원들이 영적으로 새롭게 무장하여 하나님의 충성된 청지기로 헌신, 봉사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난 88년 9월에 처음 시작하였다. 이 훈련이 거듭됨에 따라 직분자들은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 희

생하며, 특별한 소명감을 가진 천국일꾼으로 훈련을 받을 수 있었다.

제자훈련원은 이번 훈련이 은혜롭게 진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내일(18일) 오후 6시 칼빈홀에서 준비 모임과 기도회를 갖기로 하였다. 제자훈련원의 조직은 다 음과 같은데, 해당하는 성도들은 전원 참석해줄 것을 바라고 있다.

◆ 조 직

원장/이중윤, 원감/오정현, 지도/이조웅, 부원감/김재명, 간사/김종근, 교학담당/강봉수, 이승철, 김태연, 김정연, 박길순, 강길래, 서무담당/정정주, 김차철, 허명호, 시설관리/고병

욱, 진행위원/김여순, 박인건, 오인근, 김영달, 강봉수, 김영수, 박창식, 오동환, 이인영, 임옥환, 이봉춘, 김춘지, 윤희자, 이미재, 최인영, 신순애, 권순애, 최이수, 홍기완, 유정숙, 김분식

제3차 성례식 일정 발표

이번 달 학습·세례식 일정이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학습, 세례를 받고자 지난 주 신청한 성도들은 이번 주간에 다음과 같이 실시되는 성례식 일정을 잘 숙지하여 빠짐없이 참석하여야 한다.

• 문답예비교육

18일(월) 저녁 7시 베다니홀에서 진행된다.

• 학습세례문답

19일(화) 저녁 7시 교구간사실에서 1부 예배와 2부 문답으로 진행된다.

• 학습세례식

20일(수) 수요일 1부 예배(낮 11시)나 수요일 2부 예배(저녁 7시) 중 성례 신청자가 선택한 시간에 참석하여 성례를 받는다.

에바다부 성인반 이태원으로 노방 전도

에바다부 성인반은 3월 10일 이태원으로 노방전도를 나갔다.

매일 한 차례씩 실시하는 이번 노방전도에는 교사와 학생 20여 명이 참여하였다.

이태원에는 청각 장애자들이 노정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한 정상인들에게도 전도지를 배부하였다.

70인전도대 개강 토요일마다 교구별로 전도대 파송



91년도 총회교회 전도위원회의 중점 사업의 하나로 준비해오던 70인전도대 교육을 개강하였다. 지난 3월 9일 오후 6시에 베다니홀에서 황영일 집사의 사회와 우기전 장로의 기도, 그리고 교육을 담당할 송태근 목사의 설교로 진행되었다.

베다니홀을 가득히 메운 2백

여명의 대원들에게서 영혼을 향한 구령의 열정을 뜨겁게 느낄 수 있었다. 3차에 걸친 면접을 통해서 지원자 2백74명 중 2백27명이 면접에 응하여 70인전도대에 거는 성도들의 열기를 가늠할 수 있었다.

훈련은 16주 동안 매주 목요일 저녁에 실시되며 교육 기간 중 토요일에는 3시부터 5시까지 사역을 정해서 17개 교구를 중심으로 전도대를 파송한다. 이렇게 훈련된 전도대의 활약을 통해서 교회 내의 영적인 쇄신과 새로운 전도의 열기를 불러 일으키리라 믿어진다.

수리남, 팔라우, 서사모아에 성경을 보내자

수리남, 팔라우, 서사모아 등지에서 건축업이나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들 가운데 중국에 거주하던 우리 교포 2세대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소식을 전해들은 현지 선교사들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한 글성경과 중국어성경을 보내줄 것을 간절히 요청하고 있다.

이에 세계선교위원회(원장 이영세 장로)는 총회 성도들이 세계 선교의 지상 명령에 동참한다는 정성으로 각 가정에서, 가지고 있는 여분의 성경이나 새 성경을 보내줄 것을 바라고 있다(접수처 - 주일: 선교관 406호, 평일: 소석관 102호).



민음의 가족들에게 드리는 사랑의 편지

사랑하는 총회의 성도님들이여!

우리 교회에는 눈이 보이지 않아 목사의 얼굴도 모른채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이 계시는가 하면, 입과 귀는 있으나 말을 하지 못하고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서 손을 움직여 수화로 예배드리는 형제도 계십니다. 사랑부의 자녀들은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영아부로부터 소망부에 이르기까지 각기 분량을 따라 총회의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은 다양하지만, 같은 신앙을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을 이루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됩니다.

총회의 예배는 항상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the most important), 가장 긴급하며(the most urgent), 가장 영광스럽게(the most glorious) 드리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예배를 최선을 다하여 드림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모든 성도들은 구원의 은혜를 받으며, 교회는 날로 부흥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총회의 가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3. 17
이 중 윤 목사

감사의 헌금 답지

이중윤 위임목사는 미국 선교 여행 중, 시카고에 거주하고 있는 임현덕 장로의 건축헌금과 필라델피아제일장로교회, 헤브론교회, 영생교회, 뉴욕남교회, 필라델피아연합교회, 영생교회, 뉴욕남교회, 필라델피아연합교회, 시카고교역자회, 구원교회로부터

답지한 성금을 사랑의 집 건축을 위한 헌금으로 전달하였다.

제6교구에서 협력 다락방장으로 봉사하고 있는 한 분의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할 천국 일꾼을 양육하는 데 써 달라며 위탁 장학금 2백만원을 헌금하였다.

청년3부 총동원 전도 위한 행사 계획

청년3부(부장 최대원 장로)가 오는 3월 24일을 총동원전도주일로 지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년3부는 24일 오후 1시 소석관 514호로, 믿지 않는 청년들과 교회 출석은 하고 있으나 야무 부서에도 소속되지 않은 재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청년들을 초

청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나누고 청년들의 영적 부흥을 도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오늘과 24일에는 돌성경 앞에서 찬양 집회를 갖고, 24일에는 간증, 찬양, 애찬을 나누는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한다.

제17교구 22일에 가족영성훈련 갖기로

제17교구는 교구 가족들의 단합과 화목을 위해, 또 교회가 지향하고 있는 모범적 교회의 실천을 위한 청지기 사명을 감당할 성숙된 신자가 될 것을 다짐하기 위한 가족 영성 훈련을 실시한다.

이번 17교구 가족 영성 훈련은 3월 22일(금) 오후 7시부터 10시 30분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찬양 및 율동, 행운권 추첨 등의 다채롭고 흥미로운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성경 감해

이 종 운 목사

인자의 때가 왔도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저희가 갈릴리 벳새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뵈옵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짜온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요 12: 20~23)

교회당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들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여러 가지들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21절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뵈옵고자 하나이다” 하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기 원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를 찾아온 성도들의 간절한 소원일 뿐만 아니라, 설교를 준비하는 목회자들의 간절한 소원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바람은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지금 올라온 예수님 앞에 몇 명의 헬라인들이 찾아와 제자들에게 예수님 뵈옵기를 요청하였습니다.

1. 예수님을 찾아온 헬라인

헬라인은 이방인의 대명사입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이라고 할 때 헬라인이란 헬라인화된 유대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월절에 경배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올라온 이방인들이라면 유대 종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실 때에 이방인인 동방 박사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에 이르는 그 순간에도 역시 이방인인 헬라인들이 찾아왔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방인들이 어디서 왔는가에 대하여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유력한 학설은 그들이 수로보니계 지방에서 온 사람들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26절까지를 보게 되면, 헬라인이며 수로보니계측속 가운데 한 여인이 예수님께 터러온 귀신들린 어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주시기를 간구하였다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수로보니계”라고 지적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본문에 나오는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직접 찾아온 것이 아니고, 빌립을 찾아간 것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빌립은 갈릴리 벳새다 사람입니다. 벳새다는 수로보니계 지역과 접경 지역에 위치한 마을입니다.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을 때, 제자들 가운데, 수로보니계 사투리를 쓰고 있는 빌립을 만나게 되자, 그에게 먼저 접근한 것입니다.

그런데 22절을 다시 보면, 빌립은 예수님을 직접 찾아가지 아니하고, 안드레를 먼저 찾아갔습니다. 빌립이 그렇게 한 것은 수로보니계에서 온 이 헬라인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까에 대하여 같은 교향 사람인 안드레와 의논하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빌립을 찾아온 헬라인들은 예수님을 만

나뵈기를 원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외형적인 모습을 보기 원했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그러했다면, 빌립에게 찾아와서 특별히 부탁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원한다는 말은 그분과 교제하기를 원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헬라인으로부터 이런 부탁을 받은 빌립과 안드레는 예수님을 바로 찾아가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는 마태복음 10장 5절과 6절에 나타난 기록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열둘을 내어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빌립과 안드레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께 선뜻 나아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또 수로보니계 여인이 귀신들린 자기 딸을 고쳐달라

자기 백성들만을 위해 세상에 오신 메시야라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과 안드레는 망설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진리를 바르게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진리를 부분적으로 알 때, 오히려 진리의 방해꾼 노릇을 하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2. 하나님의 때

빌립과 안드레는 여러 가지로 고심을 하다가 결국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본문에는 빌립을 찾아왔던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났는지에 관해 아무런 기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빌립과 안드레가 예수님께 가서 헬라인들에 대해 여쭙자, 다만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요 12:23). 이 말을 통해서 우리들은 빌립이 그 헬라인들을 예수님과 만나게 했음을 알 수 있

진리를 부분적으로 알 때

진리의 방해꾼밖에 안돼

인자의 때란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시는 때를 의미

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 7:27).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헬라인들을 개와 같이 여기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제자들로서는 감히 헬라인들을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4장 22절을 보면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난다”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당시에는 유대인들만이 구원을 받는 것이지 헬라인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제자들은 철저하게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만을 위하여 메시야로 오셨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유감스럽게도 구약성경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은 이방 민족에 대하여 빛을 살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이방 사람들까지도 구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습니다. 빌립과 안드레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유대인들의 찬양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찬양도 받으신 것을 기억하고 용기를 얻었던 것입니다.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요 12:23)라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을 보게 되면 “때가 왔고”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마가에 의해서 예수님에 대한 중요한 말씀이 선언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이 때를 기다리며 때가 차기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몇 시 몇 분을 가리키고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정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릴 때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는 이 말씀을 여기서 처음 하셨습니다. 기나 혼인잔치 때 포도주가 떨어져 어머니가 도움을 요청하자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고 거절하셨습니다. 또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쫓아다닐 때도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손을 대지 못할 것이라고 하

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날아가는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지는 법이 없다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때를 위하여 준비할 줄 알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들은 때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3. 인자의 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는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인자”란 “사람의 아들”이라는 의미보다는 “메시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자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특히 고난을 받으시는 그리스도라는 뜻이 인자라는 말 속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인자의 때란 영광의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 유대인들만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고 따르려고 물려든 것이 아닙니다. 헬라인들까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물려들었습니다. 헬라인들이 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헬라인들은 모든 이방인들의 대명사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방인들까지도 자기 앞에 나아와 무릎을 꿇고 주님을 섬기는 모습을 바라보고서 자신이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과 10절에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 마지막날 온 천하 모든 족속들이 무릎을 꿇고 그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지금 그 영광을 받으시는 때를 맞이하셨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인자의 때란 죽음의 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게 되면 부활하실 때가 올 것이고, 부활하시게 되면 승천하실 때가 오게 되니 그렇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24절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께서 얼마 후에는 죽으실 텐데 영광의 때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온 천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놀라운 “구원의 때”가 도래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가 되었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들이 인류를 대신하여 죽으셨음을 믿는 것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클로즈업

파이프오르간 독주회 갖는 백금옥 집사

교회 찬양대
반주만
18년째 봉사

우리 교회의 아멘찬양대 반주자로 봉사하시는 백금옥 집사님이 오는 18일 저녁 7시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서 파이프오르간 독주회를 갖는다. 연주회 준비 관계로 분주하신 집사님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다.

연세대학교 종교음악과 2학년 재학시부터 본격적인 찬양대 반주를 시작, 올해로 18년째를 맞게 되는 백 집사님은 집사님 가정의 종교적 배경을 고려하신 은사님의 권유로 오르간을 전공하게 되었다.

반주자로 수고하시면서 가장 은혜로웠던 순간을 묻는 질문에는 그 동안 모든 순간순간이 다 은혜로웠고 좋은 오르간을 연주할 때는 스스로의 연주에 큰 감동을 받으신다고 하셨다.

이번 연주회에 특히 중점을 둔 곡은 마지막에 연주하게 될 레우부케(J. Reubke)의 '시편 94편'으로, 연주 시간이 30여 분이나 걸리는 대곡인데, 이 곡의 연주가 이번 연주회의 거의 절반을 차지한다.

평소 대학 교수(서울신학대)로서 후진을 양성하는 것도 게을리하지 않으시는 백 집사님은 우리 교회 찬양대들에 남다른 애착과 기대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찬양대원들의 더욱 더 열정적인 연습과 좋은 솔리스트들의 확보를 통해 보다 나은 모습을 보여주어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이에 따른 많은 문제들에 대해 교회가 보다 많이 지원하고 기도해줄 것도 기대하고 있다.

국내에서 가장 웅장하고 아름다운 소리를 나타내는 파이프오르간을 가진 세종문화회관에서 하는 이번 독주회에 많은 우리 교인들이 참석해서 악기의 왕이라고 일컬어질 만큼 다양한 음색을 갖고 있는 파이프오르간 연주의 진수를 만끽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이셨다.

바쁘시더라도 모쪼록 시간을 내셔서 아름다운 오르간 연주를 듣는 여유를 가진 충현의 식구들이 되어보는 것이 어떨지...

독자의 난

바람직한 학창 생활

김 단 용 집사(중등 3부 부감)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교회 분당 앞 광장 아래에서 큰 소리가 나는 쪽으로 머리를 돌려보니, 2년 전 대학부에서 함께 지내던 청년이 밝은 웃음을 띠면서 나를 향하여 걸어오고 있었다. 송구영신 새해 첫 예배를 드리러왔다는 그 청년은 부모님과 함께 예배드렸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더욱 기뻐하였다. 나와 함께 대학부에 있을 때는 부모님께서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수한 대학을 졸업하고 큰 회사의 연구소에서 일하고 있는 이 청년의 신앙 생활과 학교 생활을 소개하려고 한다.

부유하지 않은 가정에서 태어난 이 청년은 농촌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의 대학교에 진학하였다. 가장 형편이 어려워서 중·고등학교 때는 학교에서 받는 장학금으로 학업을 계속하였고 서울에서 지내는 대학 생활도 여의치 못하여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공부하였고 장학금도 받게 되었다.

이 청년의 학교 생활과 신앙 생활의 특징은 항상 규칙적이며 계획적으로 시간을 활용하였다는 것이다. 즉 계획한 것을 규칙적으

로 실천하였다는 것이다. 아침 5시에 일어나 30분간 성경 읽고 기도한 후,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다. 학교에서의 수업을 충실하게 준비하였고 수업 내용을 잘 정리하여 듣고 생각하였다. 수업이 끝난 후 그날 배운 것을 다시 정리하고 문제를 풀어 보았다. 수업 시간에 잘 알아 듣지 못하는 과목은 예습을 반드시 하도록 하였으며, 다른 사람에게 설명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항상 염두에 두고 정리하였다. 잠들기 전에는 30분간 기도하였으며 매주 토요일 교회의 토요집회에 참석하며 조장으로도 열심을 다해 봉사하였다. 성경공부할 때는 반드시 생활에 적용시켜 보도록 노력하였다. 주일에는 아침 8시부터 교회에서 봉사하며 저녁예배를 드리도록 하였다. 친구들과 기도모임을 통하여 부모님과 친척들을 위한 기도, 나라와 교회를 위한 기도, 학교 생활에 대한 기도를 드렸다.

누구든지 중·고등학생이 되면 많은 문제로 고민이 생기고 불안한 일들이 계속되므로 짜증만 나고 자유스러워지고 싶은 심정으로 살아갈 때가 많다. 그때마다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거나 생활 습관을 무질서하게 일궈간다면 점점 이상의 실현이 어려워지게 된다. 그러므로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가지고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자신의 의지력만으로 한다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여야 한다. 주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매일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부지런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평계하기 쉽고 미루기 쉬운 나태한 생활보다, 적극적이고 부지런하며 책임감을 가지고 솔선수범하는 학교 생활과 신앙 생활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으로 믿는다.

바른 신앙 생활을 바탕으로 학교 생활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으로 학교 생활에서의 불안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믿는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잠언 13:20)



은밀한 기도



이 영 세 장로

예수님께서는 산상설교를 통하여 기독교 신자들이 이 살아가면서 지게야 할 여러 가지 지침을 가르쳐주시는 가운데 구제와 금식과 기도 등에 대한 교훈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한 가지 공통된 교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일을 행할 때는 반드시 "은밀한 중에 행해야 하며" 그렇게 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알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남을 돕거나 착한 일을 할 때 팔매대에 걸린 동기가 순수하지 못하여 자신들의 행동을 미화시켜 주변 사람들로 부터 칭찬받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으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삶을 살기 위하여 끝없이 경쟁하고 위선에 빠저기도 합니다. 결국은 우리 자신을 잃어버린 채 피곤하고 험난한 과정을 경험하는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신앙인의 행동 기준을 보통사람들과 같이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에 두어서는 안되며 오직 "하나님께 인정받는 행동"을 해야 한다고 가르쳐주셨습니다.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행한 행위는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으로 끝나게 되므로 더 이상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인들은 오로지 하늘나라만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교훈에 따라 조용히 일을 행하여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귀한 상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기쁜 일인가를 깨닫고 오직 이것을 위하여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는 신앙인의 호흡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평연히 해야 할 기도를 유독히 나 혼자 신앙에 깊어져 열심히 할 것인양 드러내 보이려 한다면, 이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 기도는 이미 사람들에게 상을 받고 끝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조용하게 남 모르는 은밀한 중에 기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새벽 기도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굳혀 잠들어 있는 식구들에게 모두 깨어나도록 소란스럽게 한다면, 또 교회나 집회에서 예뻐서 기도드릴 때 남 보란듯이 옆 사람은 어랑 곳 하지 않고 큰 소리로 기도드릴 때 은밀하게 기도드리는데 옆 사람에게 누를 끼쳤다면, 이와 같은 행동은 하나님께 인정과 상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아울러 예수님께서는 기도할 때에 중언부언하게 말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말로 되풀이할 필요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드리는 기도의 길이를 재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무게와 깊이와 간절한 마음을 보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참되고 간절할 때에 그 기도 에 귀를 기울이실 것입니다.

기도는 올바르게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은 우리들만의 생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구하며, 주님께서는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의 모범으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즘 세상은 떠들석하고 요란합니다. 시끄러운 소리와 광음이 우리들의 귀를 따라다며 우리들의 고막을 때리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들 자신도 큰 소리로 외쳐야 하고, 설교도, 강의도, 대화도 큰 소리로, 기도 또한 큰 소리로 외쳐다니 이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어떠하실지요. 우리는 기도드릴 때 우리가 하고 싶은 말만 급하게 쏟아놓고는 아멘합니다. 그리고는 바쁘게 일어나 때쁘게 뛸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 보지도 않고서 말입니다.

예제는 '하나님이여, 말씀하소서, 응답하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하며 은밀한 기도, 침묵의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다음호 세기동은 노광현 장로님께 부탁드립니다.

■ 교육의 현장 - 중등3부

교사·학생의 자발적인 참여로 새로운 변화 시도

중등3부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자”라는 교육 목표 아래, 김은태 목사를 지도 목사로, 송기홍 장로를 부장으로 모시고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다. 고등학교 입시를 목전에 두고 학업에 의해 도전받고 있는 학생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예수님의 삶을 따르며, 주님의 말씀을 전파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다.

3월 셋째 주까지 심방을 모두 마친 중등3부는 교사와 학생들이 각자에게 주어진 활동 영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모범적인 교육 부서의 상(像)을 세워나가는 데 협력하고 있다.

이들은 교역자 한 사람에게 의존하는 식의 교육을 지양한다. 다시 말해서, 지도 목사가 교육 방향을 설정하되, 교사들은 청지기적 사명감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학생들의 신앙 생활을 지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다. 그래서 교사들은 공과 공부를 미리 준비하고, 각종 행사들을 위한 아이디어를 수립하여 발표하는 등, 학생들을 전국일꾼으로 양육시키는 데 부단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다.

급년에는 중등부가 학년별로 새롭게 편제된 뒤, 중3 학생들에게 적합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어, 학생들이나 교사들 모두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즉 주입식 학습 방법을 탈피하고 수업을 대화

식으로 진행함으로써, 학생과 교사가 함께 진리를 연구해나가고 있다. 신앙 문제뿐만 아니라, 학업, 부모, 친구 관계에서 야기되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오늘 개최한 학부모 초청 강좌도 이런 맥락에서 마련된 것이다.

중등3부 교육에 있어서 또 하나의 특징은 학생들이 모두가 각종 행사에 주인의식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이다. 즉 학생들은 찬양대, 기자단, 싱어봉, 반장, 면려회, 핸드벨 콰이어와 같은 여러 소그룹에서 한 가지 이상씩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중등3부에서 일어나는 아주 적은 일 하나에도 교사들의 지도 아래 학생들이 모두가 참여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주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되고, 달란트를 개발하는 데 많은 도움을 얻고 있다.

또한 이들은 매주 토요일 역삼역으로 나가 전도지 쏘는 일도 자발적으로 함으로써,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일에도 열심을 기울인다.

주어진 여건을 심분 활용하여 학생들이 기독교적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애쓰고 있는 중등3부의 열심이 아름다운 결실로 나타나리라 믿는다.

83년에 여전도회에서 설립, 개척을 하여 경기도 연천 지방에 세워진 지교회 재현교회. 9년간 허상은 목사님께서 시무하셨으나, 연세도 많으시고 몸도 쇠약해져서 사임하셨다. 그리고 그 후임으로 충현교회에서 수고하시던 한용관 목사님이 수고하시게 되었다.

우리 교회 전도위원회에서 전도 집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후원해주고, 지원금까지 마련해주었다. 재현교회는 2월 4일부터 7일까지 4일간 한용관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전도 집회를 갖기로 하였다.

지원교회를 다녀와서

재현교회 측에서 전도 대원을 요청하였기에 전도위원회는 이의복 권사님, 박윤석 권사님, 장기옥 권사님 세 분을 모시고 2월 4일 오후 3시에 재현교회에 도착하였다. 도착 기도회를 마친 후, 재현교회 제직들과 같이, 기도로 준비하고 계획을 세워서 각 팀으로 나뉘어져서 축호 전도를 나갔다. 믿다가 타락한 성도들의 가정을 비롯한 마을의 사람들을 집집마다 찾아 다닌 결과, 예상했던 것보다 많은 수확을 거둘 수 있었다. 첫 집회 시간부터 이웃에 있는 고문리장로교회의 목사님까지 협력, 힘써 주심으로 주일에 10여 명 정도 모이던 것이 집회 첫 시간에 30명이 참석하였

다. 이에 자신감과 용기를 얻은 제직들과 우리 일행은 다음날에도 전도한 결과, 40명이 참석하였으며, 셋째날에는 본 교회 교인들과 새로 나온 분들만 참석했는데도, 출석한 사람이 40명에 달했다. 그 중 새로 나온 사람들이 20명이나 되므로 모두들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 넷째날에는 개척 당시 여전도회 회장단이었던 권사님들께서 떡찬치를 배풀어주셨고, 교회에서 준비한 타올과 떡을 집집마다 전해 주면서 전도하였다. 눈내리고 바람부는 것도 무릎쓰고 열심히 전도한 결과, 저녁 집회에는 많은

는 우리들을 보고 불신자들은 ‘예수 믿으면 저 사람들과 같이 될까봐 예수 믿는 것이 겁난다’라고 할 정도였다. 그러나 예수쟁이 예수미치광이라는 별명까지 얻었으니 말할 수 없이 기쁘고 영광스러웠다.

나는 세 분 권사님과 재현교회 제직들이 육신의 고통을 받는 환자들을 많이 모아주셔서 3일 동안 백여 명의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전도할 수 있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모르고 안 믿고 살던 것이 후회스러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만 섬긴 것이 가장 무섭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경 철 장로(제12교구)

불신자들까지 나와 7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부흥회를 열었다. 집회 후에는 떡과 과일도 즐거운 잔치까지 마련하였다. 재현교회 제직들과 어린이들은 감격의 시간을 보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새로 나온 분들을 환영하면서 인원수를 적어보니 30명이 넘었다. 그들 가운데 20명은 예수님을 열심히 믿기로 약속까지 하였다.

4일 동안 재현교회 제직들과 우리 교회 세 분 권사님들께서 열심히 전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셨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우리들을 보고 ‘예수 미치광이’라고까지 하였다. 이처럼 정신없이 전도하

고 큰 죄란 것을 깨닫게 될 때 예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4일 동안의 전도 집회를 모두 마치고 7일 밤 늦은 시각에 서울에 도착하였다. 우리 일행은 순서순서마다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렸다. 많은 결실을 바라면서 기도하며 주일에 좋은 소식이 올 것을 기다렸다.

주일은 지나고 월요일에 15명의 새신자가 자진해서 대예배에 참석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섭리에 기뻐하며 전도를 다녀온 세 분 권사님과 같이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제 12과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백성

본문 : 사사기 2 : 10~23

찬송 : 337, 368

본문연구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문화를 동경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급속히 그들처럼 되어갔습니다. 사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때 그 실상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사사기 전체의 내용을 잘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1. 타락해가는 하나님의 백성(삿 1 : 1~3 : 6)

지도자 여호수아와 그 시대 사람들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가나안 땅을 끝까지 정복하라는 그 명령을 저버렸습니다. 그들은 나태하고 음란한 생활에 빠져서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도 않았을 뿐더러, 오히려 그들의 생활을 본받게 되었습니다.

2. 심판과 회복을 거듭하는 하나님의 백성(삿 3 : 7~16 : 31)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자 그들은 다른 나라의 압제를 받게 되었으며, 그런 가운데서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일으켜 구원시켜주시어 평화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다시 범죄하고, 회개하는 과정을 일곱 번씩이나 되풀이 하였으므로 그들의 역사나 개인의 삶에서는 아무런 발전이나 의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3. 타락의 결과들(삿 17 : 1~21 : 25)

이 부분은 그들의 종교적, 사회적, 도덕적 부패가 얼마나 심각했으며 그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치명적인 상처가 되었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4. 결 론

사사기의 저자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삿 21 : 25)는 말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이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또 하나님의 뜻은 구현하는 지도자가 없을 때, 이처럼 살게 된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고 있으며, 우리의 사회에는 모세나 여호수아와 같은 지도자가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문답

1.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2. 그들의 역사는 어떤 과정을 되풀이 했습니까(삿 2 : 16~19)?
3. 사사기의 결론에 해당하는 구절은 무엇입니까?

토의

1. 지난 주일 설교나 읽은 말씀 중에서 깨닫고 결심한 것을 발표해봅시다.
2. 한 주간 살면서 은혜받은 일들을 나누어봅시다.

기도

1. 제자훈련, 충현복음심포지움, 각종 성경공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2. 교회에 세우신 일꾼들과 교회의 발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3. 나라의 평안과 복음화를 위해 기도합니다.